

부록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9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9¹⁾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 전체
GDP 증가율		-3.0	1.0	0.8	3.2	-0.1	2.3	-25.5	0.1
1인당 GDP 증가율	% (연증가율)	-3.9	0.3	0.0	2.4	-1.2	1.1	-26.3	-0.9
소비자물가 상승률		49.7	2.5	2.7	3.9	3.0	1.9	39,114	2.4
명목 GDP	십억 달러	445	1,847	294	328	1,274	229	70	5,188
1인당 명목 GDP	달러	9,888	8,797	15,399	6,508	10,118	7,047	2,548	8,252
실업률(연평균)	%	10.4	12.0	7.5	10.6	3.6	4.2	7.2	8.2
수출	십억 달러	65.2	225.6	70.5	42.5	463.8	45.5	14.5	1,070.5
수입		50.7	183.7	66.8	54.5	467.0	40.4	5.9	1,059.0
무역수지		14.5	41.9	3.7	-12	-3.2	5.1	8.6	11.5
외환보유고		43.5	367.7	39.8	53.1	183.5	67.7	8.1	859.0
경상수지	% (GDP 대비)	-1.2	-1.2	-3.5	-4.2	-1.2	-1.9	7.0	-1.6
재정수지		-3.9	-6.4	-2.2	-2.4	-1.9	-1.8	-1.4	-2.1
총정부부채		80.7	78.7	35.0	58.0	44.9	24.8	31.7	59.9

주: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는 IMF 통계 기준, 나머지 통계는 ECLAC 통계 기준, 칠레의 총정부부채는 2018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은 2017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는 2015년 기준

출처: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국제통화기금(IMF)

1) 이하에서는 ECLAC(2019)의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9",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통계를 사용함.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19년 중남미 경제는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그 성장 폭은 2018년 보다 크게 낮은 0.1%에 그쳤음.

| 경제성장 둔화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등 내수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2017~18년과 달리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이는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내수 침체에 따른 큰 폭의 수입 하락에 기인함.

:: 권역별로는 멕시코 및 중미 경제권과 남미 경제권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모양새를 보임.

| 이 같은 성장률 격차 축소는 무엇보다도 멕시코 경제의 성장을 둔화에 기인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정치경제 혼란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멕시코 경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요인은 투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2019년 1~9월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함.

- 이밖에 정부의 예산 집행 저체도 경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됨.

| 브라질 경제는 사상 최저의 금리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의 여파로 투자 회복이 지체되며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1% 성장에 그침.

| 콜롬비아는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3.2%)를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2.7	-2.1	2.7	-2.5	-3.0
브라질	-3.5	-3.3	1.3	1.3	1.0
칠레	2.3	1.7	1.3	4.0	0.8
콜롬비아	3.0	2.1	1.4	2.6	3.2
멕시코(c)	3.3	2.9	2.1	2.0	-0.1
페루	3.3	4.0	2.5	4.0	2.3
베네수엘라	-6.2	-17.0	-15.7	-19.6	-25.5
중남미(b)	-0.2	-1.0	1.2	1.0	0.1

주 | (a)는 추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기준, (c)는 멕시코 정부 속보치
출처 | ECLAC

::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1인당 GDP 증가율은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나머지 주요국들은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그 성장 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중남미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1.7	-3.0	1.7	-3.4	-3.9
브라질	-4.4	-4.1	0.5	0.5	0.3
칠레	1.4	0.8	0.5	3.2	0.0
콜롬비아	2.0	1.2	0.5	1.8	2.4
멕시코	1.9	1.6	0.8	0.7	-1.2
페루	1.9	2.7	1.3	2.7	1.1
베네수엘라	-7.4	-18.1	-16.7	-20.6	-26.3
중남미(b)	-1.3	-2.1	0.2	0.0	-0.9

주 | (a)는 ECLAC 추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 ECLAC

2. 투자

:: 중남미 각국의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8년 일시적인 증가세로 반전되었던 투자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됨.

| 2019년 상반기 중남미 지역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투자가 감소함.

| 그에 반해 브라질과 페루에서 투자는 소폭 증가함.

::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로 2019년 GDP대비 투자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 (17.7% → 17.3%)함.

|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22.2%), 칠레(21.2%), 페루(21.0%) 등이 중남미 지역 평균 이상의 투자율(GDP대비)을 보임.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평균을 크게 밑도는 투자율(GDP대비)을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투자율(GDP대비) 추이(a)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b)
아르헨티나	16.7	16.0	17.5	16.9	13.8
브라질	18.2	16.6	16.0	16.5	16.8
칠레	22.6	21.9	21.0	21.2	21.2
콜롬비아	23.7	22.5	22.7	22.4	22.2
멕시코	22.1	21.7	20.9	20.6	19.7
페루	22.5	20.7	20.5	20.6	21.0
베네수엘라	14.4	9.5	6.2	4.8	—
중남미	19.2	18.0	17.6	17.7	17.3

주 | (a)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b)는 추정치
출처 | ECLAC

3.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수출)

::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로 2019년 수출은 전년대비 2.0% 감소함.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수출 가격은 전년대비 2.8% 하락함. 그 중에서도 탄화수소와 광물의 수출 가격이 각각 7%, 5% 떨어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그에 반해 농산물의 수출 가격 하락은 3%에 그침.

| 수출 가격은 하락한데 반해 중남미 지역의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함.

- 중남미 지역 중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이 높은 멕시코와 중미의 경우 미국 경제의 호황세에 힘입어 수출 물량이 각각 5%, 1% 증가함.
- 그에 반해 남미의 경우 주요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수요 감소와 주요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수출 물량 증가폭이 매우 제한적임.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만이 수출 증가세를 시현함.

| 아르헨티나는 탄화수소 생산 증가에 힘입은 연료 및 에너지 수출 증가, 2018년 가뭄 피해로 감소했던 농산물 생산의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전년대비 5.9% 수출 신장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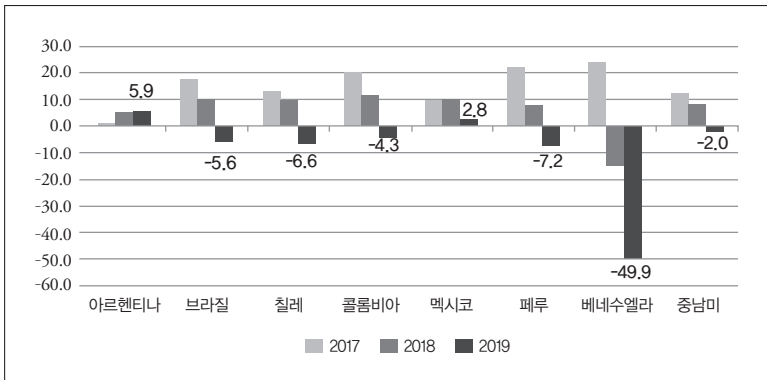
| 멕시코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댄 대미(對美) 수출 증가로 2.8%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원자재 주요 수출국인 페루(전년대비 -7.2%), 칠레(-6.6%), 브라질(-5.6%), 콜롬비아(-4.3%) 등 남미 국가들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 부진을 기록함.

| 특히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 급감으로 수출 감소폭이 약 50%에 달함.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전체적인 수출 감소로 중남미의 수출 규모는 2018년보다 217억 달러 줄어든 1조 70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4,638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256억 달러), 칠레(704억 달러), 아르헨티나(652억 달러), 페루(455억 달러), 콜롬비아(425억 달러), 베네수엘라(145억 달러)가 이음.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56,813	57,930	58,636	61,638	65,247
브라질	190,092	184,453	217,243	239,034	225,648
칠레	62,183	60,733	68,859	75,462	70,460
콜롬비아	38,275	33,091	39,676	44,373	42,465
멕시코	380,976	374,304	409,806	451,054	463,759
페루	34,414	37,082	45,422	49,066	45,515
베네수엘라	37,357	27,403	34,030	28,983	14,534
중남미	919,908	897,560	1,008,064	1,092,235	1,070,527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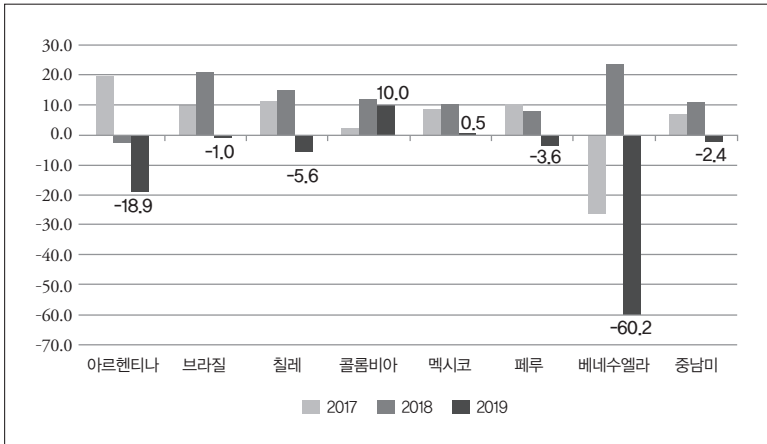
나. 수입

::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은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수입 물량은 전년대비 0.9% 줄었으며 수입액도 2.4% 감소함.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감소함.

| 최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폭의 수입 감소세(전년대비 -60.2%)를 보였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18.9%), 칠레(-5.6%), 페루(-3.6%), 브라질(-1.0%)이 이음.

| 그에 반해 콜롬비아(전년대비 10.0%)와 멕시코(0.5%)에서 수입은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중남미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262억 달러 감소한 1조 590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4,670억 달러로 가장 수입 규모가 컸으며, 그 뒤를 브라질(1,837억 달러), 칠레(668억 달러), 콜롬비아(545억 달러), 아르헨티나(507억 달러), 페루(404억 달러), 베네수엘라(59억 달러)가 이음.

중남미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57,176	53,505	64,101	62,505	50,716
브라질	172,422	139,416	153,215	185,447	183,678
칠레	58,718	55,293	61,500	70,783	66,814
콜롬비아	52,050	43,239	44,247	49,583	54,539
멕시코	395,573	387,369	420,790	464,850	467,010
페루	37,331	35,128	38,722	41,870	40,378
베네수엘라	36,901	16,370	12,023	14,866	5,910
중남미	981,650	911,859	976,291	1,085,188	1,059,032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개선을 보이던 중남미 지역의 교역조건은 2019년에 하락세로 반전됨.

| 에너지 가격, 산업용 원자재(구리, 아연, 주석 및 납 등), 일부 주요 농산물(커피, 옥수수 및 대두 등) 가격의 하락으로 중남미 교역조건은 전년대비 1.4% 악화됨.

| 이 같은 교역조건 악화로 중남미 각국의 가처분 소득 및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중남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상품별로는 탄화수소(석유 및 가스)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전년대비 5.0%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됨. 다음으로 광물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3.2% 하락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교역조건이 가장 크게 악화(전년대비 -8.0%)되었으며, 콜롬비아(-5.7%), 페루(-3.4%), 칠레(-2.9%), 멕시코(-1.5%) 순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역조건은 각각 0.6%, 0.3% 소폭 개선됨.

중남미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10 = 100)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100.6	106.7	103.6	104.9	105.5
브라질	85.5	88.1	93.2	91.3	91.6
칠레	87.5	91.2	100.5	98.5	95.6
콜롬비아	68.9	68.2	79.8	87.1	82.1
멕시코	93.0	89.7	91.2	92.1	90.7
페루	87.5	87.1	93.3	93.2	90.0
베네수엘라	65.9	55.3	64.8	78.6	72.3
중남미	88.4	87.7	91.3	92.4	91.1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 감소세를 증가하는 수입 감소세에 따른 불황형 흑자에 힘입어 2019년 중남미 지역의 무역수지는 3년 연속 흑자를 시현함.

| 무역수지 규모도 2018년 7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115억 달러로 증가함.

| 그러나 국별로 무역수지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냄.

- 2018년과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큰 폭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으나 그 규모는 수입 증가세를 반영해 축소됨.
- 칠레와 페루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시현했으며, 아르헨티나도 수입 축소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달성함.
- 그에 반해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363	4,425	-5,465	-867	14,531
브라질	17,670	45,037	64,028	53,587	41,970
칠레	3,465	5,440	7,359	4,679	3,646
콜롬비아	-13,775	-10,148	-4,571	-5,210	-12,074
멕시코	-14,597	-13,065	-10,984	-13,796	-3,251
페루	-2,917	1,954	6,700	7,196	5,137
베네수엘라	456	11,033	22,007	14,117	8,624
중남미	-61,742	-14,299	31,773	7,047	11,495

출처| ECLAC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무역수지 개선과 송금유입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개선됨.

-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경상수지적자 압박요인으로는 소득수지 악화를 들 수 있음.
 - 중남미 지역의 소득수지는 브라질 등 중남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윤 송금 감소와 과도한 부채에 따른 높은 이자상환으로 GDP대비 3.3% 적자에 달함.
- | 그에 반해 해외 교민의 본국 송금유입액은 GDP대비 1.8%에 달해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 모두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증가함.
-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해오고 있음.

중남미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17.6	-15.1	-31.6	-27.5	-5.4
브라질	-54.5	-24.0	-7.2	-14.5	-22.3
칠레	-5.7	-4.0	-6.0	-9.2	-10.2
콜롬비아	-18.6	-12.0	-10.2	-13.1	-13.9
멕시코	-30.9	-24.2	-20.1	-22.0	-15.0
페루	-9.5	-5.1	-2.7	-3.6	-4.4
베네수엘라	-16.1	-3.9	8.7	6.3	4.9
중남미	-170.5	-97.7	-78.8	-99.2	-80.9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IMF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GDP대비 경상수지는 적자규모 축소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2018년 -1.9% → 2019년 -1.6%)됨.

| 국별로는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 반해 나머지 주요국에서 경상수지는 소폭 악화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이 GDP대비 3%미만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유지함.

중남미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2.7	-2.7	-4.9	-5.3	-1.2
브라질	-3.0	-1.3	-0.4	-0.8	-1.2
칠레	-2.3	-1.6	-2.1	-3.1	-3.5
콜롬비아	-6.3	-4.3	-3.3	-4.0	-4.2
멕시코	-2.6	-2.2	-1.7	-1.8	-1.2
페루	-5.0	-2.6	-1.2	-1.6	-1.9
베네수엘라	-5.0	-1.4	6.1	6.4	7.0
중남미	-3.2	-1.9	-1.4	-1.9	-1.6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IMF

4. 정부지출 및 재정수지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재정지출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GDP대비 20.9%)에 머뭇.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재정지출²⁾은 2018년 18.5%(GDP대비)에서 18.3%로 소폭 감소함. 그에 반해 재정수입은 2018년과 같은 18.1%(GDP대비)를 기록함.

| 이 같은 재정지출 감소에 힘입어 명목재정수지에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적자는 2018년 0.4%(GDP대비)보다 개선된 0.2%를 기록함.

:: 중남미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9년 명목재정수지적자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2.1%)함.

| 소지역별로는 중미 지역보다 남미 지역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두드러짐.

| 중미 지역에서는 기초재정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로 명목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2018년과 같은 2.5%를 기록함.

- 2019년 중미 지역의 기초재정수입(GDP대비)은 16.5%를 기록한데 반해 기초재정지출은 16.3%를 기록해 기초재정수지는 0.2% 흑자를 보임.
- 그러나 총재정지출(GDP대비)은 이자지급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18.9%에서 2019년 19.0%로 소폭 증가함.

| 남미 지역에서는 각국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에 힘입어 명목재정수지적자(GDP대비)가 2018년 3.3%에서 3.1%로 개선됨.

- 남미 지역의 기초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재정지출 감소에 힘입어 2018년 0.8%에서 2019년 0.6%로 축소됨.

2) 기초재정지출 기준. 기초재정지출은 명목재정지출에서 정부부채 상환 등 금융비용을 제외한 것임.

중남미 주요국의 명목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5	2016	2107	2018	2019
아르헨티나	-3.7	-5.7	-5.8	-5.6	-3.9
브라질	-9.1	-7.6	-7.7	-7.3	-6.4
칠레	-2.1	-2.7	-2.7	-1.6	-2.2
콜롬비아	-3.0	-4.0	-3.7	-3.1	-2.4
멕시코	-3.4	-2.5	-1.1	-2.0	-1.9
페루	-2.1	-2.1	-2.8	-2.0	-1.8
베네수엘라	-1.4	-	-	-	-
중남미(a)	-2.7	-2.8	-3.0	-2.2	-2.1

주 | 2019년은 추정치, (a)는 단순 평균으로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아이티,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지 않음.
출처 | ECLAC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총정부부채(GDP대비)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 (59.9%)을 기록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에서 정부부채가 소폭 증가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는 정부부채 감소세가 비교적 현저함.

-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정부부채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高)인플레이션으로 명목GDP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중남미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정부부채 규모를 기록함.

| 그에 반해 페루의 정부부채 규모(24.8%)는 중남미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총 정부부채(비금융부문)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52.6	53.1	56.6	86.0	80.7
브라질	65.5	69.9	74.1	77.2	78.7
칠레	27.6	30.7	31.9	35.0	—
콜롬비아	54.9	54.9	54.4	57.5	58.0
멕시코	45.4	49.4	47.0	46.9	44.9
페루	19.8	22.1	22.8	23.2	24.8
베네수엘라	31.7	—	—	—	—
중남미	56.6	57.7	58.6	59.1	59.9

주 | 2019년은 추정치
출처 | ECLAC

5. 실업률

::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악화된 수준인 8.2%를 기록함.

| 국별로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실업률이 증가함.

| 특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순으로 실업률 증가세가 두드러짐.

- 칠레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실업률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멕시코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이 실업률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브라질의 경우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실업률이 소폭 개선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함.

| 그에 반해 멕시코와 페루는 중남미 평균을 크게 밑도는 실업률을 기록함.

중남미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평균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르헨티나	6.5	8.5	8.4	9.2	10.4
브라질	8.5	11.5	12.7	12.3	12.0
칠레	6.2	6.5	6.7	7.0	7.5
콜롬비아	8.9	9.2	9.4	9.7	10.6
멕시코	4.3	3.9	3.4	3.3	3.6
페루	3.5	4.2	4.1	3.9	4.2
베네수엘라	7.0	7.3	7.2	—	—
중남미	6.6	7.9	8.1	8.0	8.2

주 | 2019년은 9월까지 추정치,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 비율
출처 | ECLAC

Ⅲ.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2019년에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함.

| 미중(美中) 무역 갈등 심화, 경기침체 장기화, 2019년 하반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반정부 시위 등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 불안 등이 중남미 외환시장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이 같은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가 평가절하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에서 통화가치(달러대비) 하락이 두드러짐.

| 특히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채무 디폴트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가장 큰 폭(전년대비 58.9%)의 가치 하락을 기록함.

| 브라질의 헤알화 약세는 미국과 금리차 축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됨. 2010년 이후 브라질-미국간 금리차는 2015년 7~11월 최대 14%에서 2019년 말 3.25%까지 축소됨.

| 칠레의 페소화는 2019년 하반기 전례 없던 반정부 시위로 11월 15일에는 1999년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래 사상 최저 수준(801.83페소)까지 떨어졌으나 2019년 말 744.62페소를 기록하며 가치를 일부 회복함.

:: 그에 반해 멕시코와 페루의 통화가치는 소폭 상승함.

| 멕시코 페소화는 2019년 상반기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shutdown) 우려,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들어 USMCA 수정안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IMF와 61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갱신 등의 효재에 힘입어 그 가치가 소폭 상승함.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109	
					환율	2018년 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13.01	15.85	18.60	37.68	59.88	58.9
브라질	3.90	3.26	3.31	3.87	4.02	3.9
칠레	707.34	667.29	615.22	694.02	739.40	6.5
콜롬비아	3,149.47	3,000.71	2,971.63	3,247.03	3281.16	1.1
멕시코	17.21	20.73	19.66	19.64	18.86	-4.0
페루	3.41	3.35	3.24	3.37	3.31	-1.8
베네수엘라	13.50	672.92	9.98	9.98	9.98	0.0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경기부양을 위한 중남미 각국의 금리인하 정책에 힘입어 정책금리는 2019년 들어 하락함.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인상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 5개국의 정책금리는 2018년 4.8%에서 2019년 4.6%로 소폭 하락함.

| 중남미 5개국에서 통화당국은 낮은 소비자물가, 낮은 폭의 평가절하, 낮은 통화변동성 등 3저 효과에 힘입어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됨.

:: 국별로 멕시코와 브라질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함.

| 멕시코 중앙은행은 연초 8.25%에 달했던 정책금리를 4차례의 인하를 거쳐 2019년 말 7.25%까지 인하함.

| 브라질도 2018년 3월부터 16개월간 금리(6.5%)를 동결해왔으나 2019년 7월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해 연말 4.5%까지 인하함.

:: 중남미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한데 반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물가와 환율안정을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함.

| 2019년 아르헨티나의 정책 금리는 44.4%에서 65.8%로, 베네수엘라의 정책금리는 6.2%에서 16.4%로 인상됨.

중남미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27.0	28.8	26.4	44.4	65.8
브라질	13.6	14.2	9.8	6.6	6.3
칠레	3.1	3.5	2.7	2.6	2.6
콜롬비아	4.7	7.1	6.0	4.3	4.3(c)
멕시코(d)	3.0	4.2	6.8	7.7	7.3
페루	3.4	4.2	3.8	2.8	2.7
베네수엘라	6.2	6.5	6.4	6.2	16.4
중남미(b)	8.7	9.8	8.8	10.7	15.2

주 | (a)는 2019년 10월 기준, (b)는 7개국 단순 평균, (c)는 2019년 9월 기준, (d)는 2019년 12월 기준
출처 | ECLAC

3. 소비자물가상승률

:: 중남미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한 2.4%를 기록함.

| 이 같은 소비자물가 하락은 비교역재 및 서비스 물가 하락에 기인함.

| 국별로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에서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짐.

- 특히 멕시코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5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그에 반해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기록함.

- 특히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은 큰 폭의 페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기인함.

:: 소비자물가는 남미 경제권에서보다 중미와 멕시코 경제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짐.

| 남미 경제권에서 소비자물가는 2018년 3.3%에서 2019년(10월까지 12개월 기준) 2.3%로 1% 포인트 하락함.

| 중미와 멕시코 경제권에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4.2%에서 2.7%로 1.5% 포인트 하락함.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27.5	38.5	25.0	47.1	49.7
브라질	10.7	6.3	2.9	3.7	2.5
칠레	4.4	2.7	2.3	2.6	2.7
콜롬비아	6.8	5.7	4.1	3.1	3.9
멕시코	2.1	3.4	6.8	4.8	3.0
페루	4.4	3.2	1.4	2.2	1.9
베네수엘라	180.9	274.4	862.6	130,060.2	39,113.8
중남미(b)	5.7	4.2	3.6	3.2	2.4

주 | (a)는 2019년 10월까지 12개월 기준, (b)는 가중평균, 아르헨티나, 아이티 및 베네수엘라 미포함
출처 | ECLAC

4. 국가위험도

:: 중남미 지역의 국가위험도(EMBI+ 기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 확대 등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1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섬.

| 그러나 이 같은 국가위험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반영해 변동성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국가위험도가 하락했음.

- 중남미 정치경제 불안의 진원지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국가위험도는 2019년에 크게 상승함.
- 칠레도 2019년 하반기들어 국내 정치사회적 사위로 국가위험도가 크게 악화됨.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단위: bps, EMBI+, EMBI Global, 연말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438	455	351	817	2,278
브라질	523	328	240	276	240
칠레	253	158	117	166	141
콜롬비아	321	227	174	231	182
멕시코	232	232	189	241	199
페루	246	175	111	141	105
베네수엘라	2,658	2,138	5,780	6,799	16,406
중남미	584	483	466	608	565

주 | (a)는 10월 기준
출처 | ECLAC

5. 주가

:: 2019년 중남미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임.

| 국별로는 칠레를 제외하고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년대비 상승함.

- 비정상적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할 경우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주식시장이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을 시현함.

| 칠레의 경우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정치사회적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전년대비 약 10% 하락함.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주가	2018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MERV)	11,675	16,918	29,975	30,292	41,671	37.6
브라질(BOVESPA)	43,349	60,227	77,020	87,887	115,950	31.9
칠레(GPA)	18,151	20,734	27,981	25,949	23,394	-9.8
콜롬비아(COLCAP)	1,153	1,352	1,514	1,325	1,659	25.2
멕시코(PC)	42,977	45,643	49,354	41,459	43,541	5.0
페루(GBVL)	9,849	15,567	19,974	19,350	20,526	6.1
베네수엘라(BC)	14,588	31,705	1,263	1,605	90,224	5,521.4

출처 | markets.businessinsider.com, tradingeconomics.com

6. 외환보유고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0.7%, 금액 63억 달러)한 8,589억 달러를 기록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감소세가 눈에 띈.

•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외채 상환이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에서 외환보유고는 증가세를 보임.

:: 국별로 외환보유고 규모는 브라질이 3,677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멕시코(1,835억 달러)가 잇고 있음.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남미 전체 외환보유고의 64.2% 비중을 차지함.

| 중남미 주요 7개국 중에서는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규모(81억 달러)가 가장 작음.

중남미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a)
아르헨티나	25,563	38,772	55,055	65,806	43,474
브라질	356,464	365,016	373,972	374,715	367,746
칠레	38,459	39,883	38,708	38,909	39,770(c)
콜롬비아	46,740	46,683	47,637	48,402	53,091(b)
멕시코	177,597	178,025	175,450	176,384	183,464(b)
페루	61,537	61,746	63,731	60,288	67,686
베네수엘라	16,367	10,992	9,662	8,830	8,051
중남미	811,779	830,960	859,335	867,118	858,995

주 | (a)는 2019년 11월 말 기준, (b)는 2019년 10월말 기준, (c)는 2019년 9월말 기준
출처 | ECLAC

7. 국가신용등급

:: 2020년 2월말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등 6개국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양호한 투자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 2019년에는 중남미 각국에서 정치경제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국가들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안정적에서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 조정됨.

| 대표적으로 과테말라, 칠레, 코스타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하향 조정됨.

중남미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20년 2월 28일 기준)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평가일자	등급	평가일자	등급	평가일자
과테말라	Ba1	2016. 06. 30	BB	2016. 10. 27	BB	2019. 04. 11
도미니카공화국	Ba3	2017. 07. 20	BB-	2015. 05. 20	BB-	2014. 11. 21
멕시코	A3	2017. 04. 27	BBB+	2016. 08. 23	BBB	2019. 06. 05
베네수엘라	Caa3	2016. 03. 04	SD	2017. 11. 14	NR	2019. 06. 27
볼리비아	Ba3	2017. 08. 01	BB	2014. 05. 16	B+	2019. 11. 21
브라질	Ba2	2017. 05. 26	BB-	2018. 01. 11	BB-	2019. 11. 14
아르헨티나	Caa2	2019. 08. 30	B	2018.11.13	CC	2019. 12. 23
에콰도르	B3	2016. 11. 23	B-	2017. 06. 29	B-	2019. 01. 10
엘살바도르	Caa1	2017. 04. 13	B-	2016. 12. 08	B-	2018.06.13
우루과이	Baa2	2017. 07. 13	BBB	2017. 05. 30	BBB-	2019. 06. 27
칠레	Aa3	2017. 08. 24	A+	2017. 07. 13	A	2019. 02. 22
코스타리카	Ba2	2017. 02. 09	BB-	2016. 02. 25	B+	2019. 10. 30
콜롬비아	Baa2	2016.05.26	BBB	2016. 02. 16	BBB	2019. 11. 20
트리니다드토바고	Ba1	2017. 04. 25	A-	2016. 04. 22		
파나마	Baa2	2015. 12. 01	BBB	2012 .07. 02	BBB	2011. 11. 21
파라과이	Ba1	2016. 06. 21	BB	2016. 06. 15	BB+	2019. 12. 06
페루	A3	2017. 08. 23	BBB+	2013. 08. 19	BBB+	2013. 10. 23

주 | 음영으로 표시한 부문은 투자적격 등급을 의미함.

출처 | Moody's, S&P, Fitch